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불교연합회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답장자: 안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칠석, 칠성은 불성을 만나는 인연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죽든지 살든지 겁내지 않아

여러분은 칠석날하면 견우와 직녀를 많이들 상상하시죠. 속담의 말뿐만 아니라 이치가 없는 말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전답을 해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인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알아들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칠석이라고 해 놓은 자체는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복두칠성도 복두칠성이라고만 이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불성은 다 평등하게 똑 같으니까 베풀어서 내려주는 이치가 있답니다. 생명의 근본을 배출해 줄 때에 우리는 또 그것을 세 분의, 즉 말하자면 삼신이라고 하죠. 세 분의 신이 받아서 우리 들한테 배부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로 말한다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라고 해도 되고, 그러한 분들을 한데 모아서 삼신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되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장부정리해서 검사한테 맡기면 검사도 보고 다 작성해서 판사한테 올려서 결정을 내리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는데 그 룯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봐서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죠. 모두,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석이라고 하는데 칠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다 때버리고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요.

그래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돌아서 인연이 되는 소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석, 칠석이라고 하는데 본래 근본은 칠성입니다. 그러나 칠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을 하자면 본래 현세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별가 아닌 거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 낳기를 원하면 아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관하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삼신한테 관하라 이러죠. 삼신은 자성삼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성삼보에 연결이 돼있는, 즉 말하자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삼신, 삼신이라고 해서 아이만 받는 소임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차원끼리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차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혼을 주라고 관하죠. 관해서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태교로 백일이 지날 때까지는 보살피거든요. 배 안에서 삼신이 보살피구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있을 때에 태교로 잘 이끌어간다면 그대로 알아들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전자에 어떠한 업적이나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런 것들이 다 겹쳤다고 하더라도 태교를 잘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말갱게 없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와야지 않느냐고 자꾸 그럴 때에 인연을 갖지도 않고 선으로서 인연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도 효

살면서 좋은 싹 틔우도록
용도대로 관하며 사세요

도하고, 효도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귀찮게 하지 않고 약한 일 생기지 않게 하면 효도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태교를 낳기 이전에 생각하지 않으니 어떻게 노력 없이 좋은 자식을 보려고 그리고 좋은 딸을 보려고 하느냐는 얘기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 안하고 어떻게 추수를 해 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반면에 추수를 해 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름도 줘야 하고 벌레도 잡아줘서 추수를 해 드릿듯이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니

라 자식을 낳는 데도 하나하나, 바로 그런 역할이 들어가야만이 소중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소중한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이란 뜻은, 우리가 영이 짧으면 칠성부처가 듣는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갈 때는 지장이 들까봐다 이러죠. 그게 말은 소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인연을 짓는 거, 예를 들어서 까치든 까치가 아니면 집 안에 서 있는 나무도 그 깃새를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무가 드르르 떨면서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뭐, 못 알아듣는다 오호라 사람들의 감각이나 지각이나 청각, 촉각, 시각, 미각이, 집중들은 단순히 갖기 때문에 잘 보고 피하지 만 우리 인간은 몽땅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거를 듣고 보지 않으면 납득을 못 하죠.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육근과 육신 육식을 다 가졌다. 그런 걸 포함해서 불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칠성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불성인 주인공 뿌리가 있으면, 그거와 포함하면 칠성이 되지만 그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불성이 되죠. 길게 부르고 할 게 없죠. 불성이라고 하면 영원한 거고, 육신은 영원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원치 못한 옷을 벗고서 오 다음에 탄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남한테 좋은 인연을 갖게 하면서 모든 걸 벗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을 켜는 것도, 만 명 중에 한 명이 촛불 하나를 켜고 하더

좋은 아이 낳기를 원하면 생기기 이전부터 관해야

라도 진실로만 마음의 촛불을 켜면 촛불 삼만 개 아니, 한 사람 앞에 삼만 개를 켜 것보다 더 값싸게 촛불을 밝힌 뜻이 나온다는 얘기도, 마음의 촛불 이라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육체와 정신이 돌아서 수레가 돌아가듯 초월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반듯하게 알아야 믿음도 진실하게 가질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됩니다.

진짜로 믿는 자는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또 잘못되고 잘되고 틀 논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가 자기 싹을 냈기 때문에 항상 보살핌에는 틀림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만큼 믿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다면 잘 된다고 해야 할까요? 죽는 것도 살릴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는 게 이리 왈 저리 왈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어도 지금 현실이 문제니까 현실에 마음의 촛불을 켜 시면서 머리가 되든 시어머니가 되든 좋은 씨앗으로서 좋은 싹을 내게끔 관하 시는 거,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할 집은 그렇게 하고, 또 먼 문제가 있는 집은 그 용도대로 관하면서, 자기 필요한 점을 알아서 관하라 이겁니다.

관하는 데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도, 믿음이 없다면 몸이 방황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혼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거기다 놓고 그자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관하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오게 되면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먼저나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이긴 한데 동시에 같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아가게 돌아간단다, 악수를 하되 마음이 가니깐 손이 저절로 따라간

다고 할 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칠석날 인간의 미를 거두고 좋은 인연을 거두고, 좋은 사랑을 거두고, 좋은 밝음을 거두고 해서 여러분이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앞날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가는 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내가 고통을 받고 사는 것으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은 영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렇게 지금 하니까 조금 관장은 영가를 내주면, 차원이 좀 높은 영가를 주면 높은 대로, 달린 트들이 배역을 잘 받으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명도 잘 못 받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받아서 산다면, 공자님이나 노자, 맹자 이런 분들도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답니다. 좋은 영명을 주시라고 몇 년씩 관



그림 · 최주현

관할 때 믿음 없으면 몸이 방황

까 지금 어렵고 괴롭다고 하고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늦지 않았으니깐,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다가올 때 내가 잘하면 위로는 조상이요, 아래로는 자식들도 거기에 미친다 이겁니다. 오늘은 실범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하고 칠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멸하고 하는 원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해봤자 진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 지구의, 세계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치가 너무도 많고 이름 붙여놓은 그 자체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죽 떨어진 생명체가 아닙니다. 말로 이름을 붙이려면 복두칠성에서 평등한 불성을 배출한다. 그러면 세 신이 그걸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대로 나누어준다. 그럴 때 우리는 관해서 그 영명이 들게끔 하느라고 정성을 지극하게 하면 바로 좋

해서 낳은 분들이랍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름이 낳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모두 여러분의 탓이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뱃속에서 들은 뒤에 그냥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서 싸우고 운동 야단들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 지 모르죠. 오히려 찜하는 것만 들려주지 않았어도 좀 나왔을 텐데, 그냥 별의 별 소리 다하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업보를 다 쓰고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태교를 해서 다 벗겨줘야 할 텐데 더 그냥 집어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 가지고는, 뱃속에서부터 보고 배운 게 거기서 어떤만큼, 집 바깥에 나와서도 여차하면 그냥 들고 패고, 여차하면 욕을 퍼붓고 여차하면 싸우고 말다툼하기 때문에 그냥 지푸리고, 속상해서 불이 난다고 하니 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요새 가만히 보면요,

애들은 내면져 두고 벌떡먹느라고 이리 저리 뛰다보면 애들은 갖은 거 다 보고, 갖은 거 다 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보고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탄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안 것만 해도 어디나 하고 그 도리를 아셔야 돼요. 나도 불성이 있고 자식들도 불성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뿌리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내 죄라고 하지 말고, 죄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등은 이쪽 방에 켜놓든 저쪽 방에 켜놓든 다 똑같습니다.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다 똑같구요. 내 마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는 반드시 그쪽하고 이쪽하고 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틀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걸 버릴 수 있어' 하는 거죠. '너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 내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틀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불 일어나듯이 하는 거를 꺼낼 수 있다면 좋고 또 켜서 좋은 일이라면 켜주기도 하고, 꺼주어야 할 때 꺼주기도 하면서 자유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지극한 마음이라면 뭐든지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예요. 아무리 관해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예요.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진실한 '마음의 촛불' 하나 어떤 것보다 가치있어

때문이지. 그러고는 거죽으로 아무리 주인공을 불러도 안되더라 하곤 방방방 뛰죠. 그렇게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고 하는 말만 믿고 하는 거요. 저 나무들이 탄 나무를 보고 믿고 삽니까? 자기 뿌리에 의지하고 살지, 조그만 나무 한 이파리도 뿌리에 다 붙어있으니까 뿌리에다가 다 놓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거름이 다 곁고루 먹여져서 푸르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가 또는 온 우주가 같이 동일하게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더불어 우리가 한생각 하는 데 세계와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마음들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가지고 그냥 야단법석하고 내가 잘났으니 내가 잘났으니, 네가 더 갖느니 내가 더 가져야 하느니 하면서 헛가지 않으려고 하고 뻗으려고 하면서 뉘뉘뉘이 되니 뭐가 온전합니까. 보세요. 일체 만물 탄생들이 한 세계로만 쳐도 말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물을 정화시키느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뉘뉘뉘이 돼서 전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오물이 바로 독성이 되고 그 독성이 물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면 태양은 물 밑에까지 가지 않고, 정화를 시켜야 전 세계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는 장마가 든다 하면 미리미리 조심해야 할 문제들을 살피고 그래야만이 삼분의 일로 줄이죠. 사람 죽는 거라든가 망가지는 거라든가 사체가 난다든가 다리가 끊어진다든가 특이 췌물니지는 거를 미리미리 살피서 소임을 맡은 자들이 미리미리 대처를 한다면 손해도 덜 날 거 아닙니까,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한 뜻이죠. 만약에 물밑에 오물이

세계적으로 있다면, 오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오래 장마가 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장마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면 물이 더 들어가서 정화를 해야 하고, 수심 번식 정화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장마가 드는지.

우린 지수화풍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을 가지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깨끗하지 않아서 독성이 돼서 풍긴다면, 산에 나무들도 그렇고 들에서 사는 사람도, 들에서 사는 생명,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그렇고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전에는 동으로 거름을 주기 때문에 그 야채를 먹으면 통을 되먹는 게 되었죠? 그래 아주 좋았죠.

근데 지금은 온 그래요. 핵폭탄이 뭐다 하고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언짢은 일입니까. 그 언저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땅으로 스미고 물로 스미고 해서 오물과 독성이 합쳐지고 전부 섞여서 독성이 되면 모두 죽는 줄 모르고 브랜드는 줄 모르게 병이 들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이치가 생기기나 일년에 한 번씩 정화를 하는데 그게 소중한 문제죠.

우리가 수돗물 나쁘다고 정화를 해서 먹죠? 그럼 자연의 법칙에서 정화를 해주는 데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소임 맡은 자들이 장마지기 전에 잘 봐서 대처해야 해요. 독에 요만큼만 구멍이 뚫려도 무너지니까요. 큰길의 하수도든지 동네 하수도든지 집의 하수도든지 막히지 않나 잘 살피고, 동네 담장을 지켜서 그런 걸 보살피야 미리미리, 죽고 무너지고 난 뒤에 돈을 많이 거둬서 줬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일년에 한 번씩 장마가 드니깐 동네마다 살피서 한 집마다 천원씩을 거둬서라도 하면, 아, 그게 너그러워 되잖아요. 사람 죽지 않고, 그런데 내의 돈을 받아먹으려고만 생각했지 내가 받아먹는 그 대가를 보살피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다, 그러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많은 바 소임을 다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한다면 그걸 어찌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하수도도 그렇고 모든 게 말입니다. 오물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밑에서 사는 생명들도 죽게 되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태양이 물밑까지 들어갈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모두를 살리는 편으로 한다면 자연의 법칙으로 정화를 시켜서 우리들을 살리는 데 그 뒤에서 그래도 움직여주는 사람들이나 살피서 그걸 해결했으면 우리가 100% 편리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돈 적고 편리한 대로만 가게를 얻어도 얻어요. 그런데 물이 잔뜩 들으니깐 망해서 다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그저 그리로 얻지 말고 좀 저쪽으로 얻으라고 그렇게 했건만, 말 안 들어요. 어찌피 계약을 해놓은 걸 취소하고 말을 들었으면 그게 다 없어 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없고 머리

업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따라 쌓이고 쌓인 것

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산 밑에다 집 짓지 말고 산 아래 너무 얇은 데다가 집 짓지 마라. 장마가 들면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고 아래로 물이 나면 모두 죽는다.' 하고 말입니다. 가게를 얻는 것도 그렇고요. 지혜가 충분하면 자기가 파는 물건의 용도에 어떠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가지 여건은 봐야죠. 물건의 용도에 따라서 장소도 필요하고 거, 떨어놓고 그냥 가게 한다 그러